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결혼 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

김 광 은[†]

공군사관학교

이 연구는 성인 애착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부부들의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 대처 전략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성인 애착의 관점에서 수행된 부부 대상 연구들을 개관하였고,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179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두 개의 성인 애착유형검사와 결혼만족도 검사, 그리고 부부갈등대처전략검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자료는 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예비분석과 부부 개인별 분석 및 부부간 애착 유형별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과 부인에 따른 성별 차이는 결혼만족도의 성적 불만족 요인에서만 나타났는데 남편의 불만족 수준이 부인보다 높았다. 둘째, 결혼만족도에서 부부들의 성인 애착 유형별 차이는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격행동, 공유시간 갈등, 경제적 갈등, 성적 불만족, 배우자 가족간의 갈등 요인에서 나타났다. 이 요인들에서 대체로 안정형 부부가 불안정형 부부보다 결혼불만족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셋째, 부부갈등 대처 전략에서 부부간의 성인애착 유형별 차이는 이성적 대처, 회피대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에서 나타났으며, 몰두-두려움형은 안정-안정형 부부보다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애착의 관점에서 논의되었으며 부부 갈등 중재 전략 수립에 주는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성인 애착 유형, 결혼만족도, 부부 갈등 대처 전략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02-H00013).

† 교신저자 : 김 광 은, (363-849)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 사서함 335-3호, 공군사관학교
전화 : 043-290-5043, E-Mail : 9pine@hanmail.net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통계청b, 2005)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집계된 주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49.7%), 가족간 불화(21.9%), 경제적 갈등(14.7%), 배우자 부정(7.0%)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이혼 사유 중 경제적 갈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은 부부 개인 뿐 아니라 부부와 가족 사이에 벌어지는 심리적 갈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부부의 이혼은 가족 해체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를 비롯한 여러 사회 기관은 물론 학계에서도 부부관계를 재 조망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상담학계에서는 부부 관계에 대한 이론적 탐색 및 실제 부부 갈등을 예방하고 이혼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04; 2005).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부부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심리학 이론 중 최근 20여년 동안 서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성인 애착의 개념을 우리나라 부부들의 결혼생활에 적용해 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부부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를 돕기 위한 시사점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애착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부부들의 성인 애착의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고 이러한 애착 유형은 결혼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방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성인 애착의 관점에서 부부관계를 조명해 보는 본 연구의 시도는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부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험적 자료는 앞으로 이 분야 연구에 기초적인 데이터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인 애착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관련 연구, 그리고 본 연구 문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인 애착과 부부관계

성인 애착의 정의

성인 애착이란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소수의 특정한 인물을 찾고 접촉을 유지하려는 개인의 안정된 성향”(Berman & Sperring, 1994)이다. 이 개념은 영아기 아동들이 양육자에게 보이는 Bowlby(1969)의 애착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어린 아동은 양육자에게 가까이 접촉(proximity-seeking)하려 하고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협한 상황에서 양육자로부터 보호받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거나(safe-haven), 외부 활동 탐색의 안전기지(secure base)로 양육자를 활용한다. 이렇게 아동들이 양육자에게 의존하는 행동을 애착으로 보았다면 양육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반응은 보살핌(care-giving)으로 구분하였다. 성인기 애착과 아동기 애착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아동기는 아동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과 양육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보살핌이 한쪽을 향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성인기에는 애착을 추구하는 대상과 애착 대상 간에 아동들이 보이는 세 가지의 애착 행동에 덧붙여 양육자가 나타내는 보살핌이 두 사람 사이에 상호적으로 이루어진다(Berman, Marcus, & Berman, 1994; Feeney, 1999; Fisher & Crandell, 2001). 발달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상호성은 영아기와 아동기의 일방적인 교류 단계를 거쳐 청소년기의 친구 관계를 통해 본격적으로

개발되며 이 시기 이후에 경험하는 낭만적인 연애과정을 거쳐 더욱 발전된다(Rothbard & Shaver, 1994).

성인 애착의 관점에서 본 부부 연구

성인 애착의 개념을 부부 관계에 적용해 보려는 선구적인 시도는 Parkes(1972)와 Weiss(1975)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Parkes(1972)는 배우자를 사별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쇼크와 고통은 아동들이 어머니와 분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분리 저항이나 분리 불안 반응과 매우 유사함을 발견하였다. 즉 남아 있는 배우자는 가버린 배우자에 대한 생각으로 꽂차 있어 가버린 사람이 남긴 환경적인 단서에 연연해하고 이들을 애타게 찾거나 격렬하게 우는 반응을 보인다. Weiss(1975)는 이혼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애착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이혼한 사람들은 누가 이혼을 주도했는지에 상관없이 양쪽 파트너 모두 아동들의 분리 불안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들, 애착 대상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찾으며 애착 대상에 접근할 수 없음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 이후에 애착 개념을 연인이나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는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와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연구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Hazan과 Shaver(1987)는 연인들 간에 형성되는 유대관계는 영아와 부모간에 이루어지는 정서적 유대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영아기에 나타나는 세 가지 애착 유형-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이 성인기에 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검증하였고 각각의 유형이 보이는 특징은 영아기 아동이 보이는 특징과 매우 유사함을

보고하였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성인기 애착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애착 관계와 현재의 애착관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표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네 가지 애착 유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자기와 타인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표상을 가지고 있는 안정형과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거부형, 거부형과 반대되는 속성을 나타내는 몰두형,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는 두려움형이다. Hazan과 Shaver(1987)와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공헌은 성인기에 나타나는 애착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개념적 근거 및 측정 도구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인 애착의 유형별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경험적 연구를 낳게 하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지난 이십여 년간 수행된 성인기에 보이는 친밀한 관계를 애착의 관점에서 설명한 연구들은 성인 애착의 유형적 특성이나 내용적인 측면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질을 얼마나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국내외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들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는 커플이나 배우자간에 전반적인 만족도 및 관계의 질을 살펴보는 연구들이다. Levy와 Davis(1988), Simpson(1990)은 애착 유형과 데이트 관계의 질을 살펴보았다. 이 두 개의 연구 모두에서 안정된 애착 유형은 데이트 관계에서 신뢰롭고, 헌신적이며 만족감과 상호 독립성이 높음에 비해 회피나 양가형은 신뢰나 만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가형은 상호 독립적이지 못하면서 헌신의 수준이 낮았다. Kobak과 Hazan(1991)은 결혼관

계에서 애착의 질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는데 안정된 배우자는 불안정한 배우자보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더 높은 만족감을 보였고 안정된 남편은 문제 해결과정에서 더 지지적이며 안정된 부인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거부하는 반응을 덜 나타냈다. Senchak과 Leonard (1992)의 연구에서도 안정된 유형을 보이는 커플은 불안정한 유형끼리 맺어진 커플이나 한쪽 배우자만 안정된 패턴을 보이는 혼합 커플보다 결혼생활 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광은 등의 연구(2005)에서도 안정된 유형은 불안정한 유형보다 연애 관계에서의 전반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이숙, 우희정, 노명희, 1997)에서도 안정된 애착 유형의 부부는 두 사람 모두 불안정하거나 한쪽 배우자만 안정적인 혼합 커플보다 전체적인 결혼 적응도가 높았다.

두 번째 연구의 흐름은 성인 애착을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을 포함한 갈등 해결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특별히 두 사람 사이의 갈등 내용과 대처 방식을 애착과 연결시켜 살펴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애착 기제는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더 활성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Pietromonaco과 그의 동료들 (Pietromonaco, Greenwood, & Barrett, 2004)은 커플간의 갈등과 애착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수행된 19개의 연구를 개관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즉 불안정한 유형은 안정된 유형보다 부부 갈등을 새로운 국면으로의 변화나 가능성보다는 두 사람의 애착 관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지각하며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방식도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도움 추구보다는 회피나 강제적인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또

한 갈등 상황시 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는 데 비해 회피적 특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거나 배우자로부터 떨어져 있으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Pistole(1989)은 갈등 해결 장면에서 안정된 유형은 불안정한 유형보다 통합적이거나 문제해결적인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며 특히 양가적인 유형보다 타협을 잘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자기노출 패턴 역시 애착 유형과 관련이 있었는데(Keelan, Dion, & Dion, 1998; Milkulincer & Nachson, 1991) 일반적으로 안정적인거나 양가적인 유형은 회피형보다 자기 노출을 잘 하며 특별한 주제에 대해 토론할 때 안정된 유형이 가장 상호적인 교류를 잘하고 융통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Feeney와 동료들 (Feeney, Noller, & Callan, 1994)은 결혼 후 2년에 걸쳐 애착과 의사소통, 관계 만족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친밀함을 편안하게 여기는 남편은 더 많이 개입하고 자기 노출을 하며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데에 비해 관계에 대해 불안해하는 부인은 더 많은 갈등과 낮은 개입, 그리고 불만족을 호소하였다. 남편과 부인 모두 갈등이 많다고 보고한 사람들은 부부 갈등에 대해 강제적이고 상호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비건설적인 갈등 해결 패턴을 나타냈다. 이러한 비건설적인 방식은 종종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는데 성인 애착과 커플간 폭력에 대한 연구(Roberts & Noller, 1998)에서 폭력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커플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불안과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커플간에 갈등을 상호적인 의사

소통 보다는 물건을 던지거나 총, 칼로 위협하는 등의 파괴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비율이 현격하게 높았다.

애착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세 번째 흐름은 부부간에 서로 보살피는 행동을 얼마나 잘 하는가와 관련된 것으로 Kotler(1985)는 부부간의 돌봄이 성격이나 건강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보다 결혼생활의 만족을 더 잘 예언한다고 하였다. Carnelly와 그의 동료들(Carnelly, Pietromonaco, & Jaffe, 1996)은 애착 유형과 돌봄의 관계를 평가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관계 만족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안정된 피험자는 보다 호혜적인 돌봄을 제공하며 이러한 돌봄은 궁극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 만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Kunce와 Shaver(1994)의 연구에서도 둘 간의 일어나는 돌봄의 질을 평가하게 했을 때 안정된 피험자는 더 높은 근접성과 민감성을 보고하는 반면에 거부적인 피험자는 낮은 근접성과 민감성을 나타냈다. 몰두형과 두려움형은 강제적인 돌봄은 높게 보고하였으나 민감성 수준은 낮았다. Kunce 등(1994)의 돌봄 척도를 결혼한 커플들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 안정된 애착형은 배우자에게 호혜적인 돌봄을 더 많이 제공했고 높은 친밀감과 낮은 불안을 보이는 사람은 강제적인 돌봄은 낮았으나 매우 반응적인 돌봄을 제공함을 발견하였다(Feeney, 1996). 또한 안정된 애착 유형의 배우자와 보다 반응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배우자의 파트너는 결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인기의 애착 행동 중 접촉 추구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것은 커플이나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관한 것이다. Feeney와 동료들(Feeney, Noller, & Patty, 1993)과 Brennan과 Shaver(1995)는 회피적인 애착 유형은 다른 애착 유형보다 성에 대해 더 가벼운 태

도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즉 이들은 하룻밤 성 관계를 갖거나 사랑 없는 성 관계를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세 가지 애착 유형 중 회피적인 여성과 양가적인 남성은 성 관계를 가장 적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적인 남성이 진지하지 않은 가벼운 성 관계를 즐김에 비해 회피적인 여성의 성 관계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성적 태도와 행동에 대해 사회적 영향이 반영된 성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Hazan, Zeifman과 Middleton(1994)은 1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과 성행동의 빈도와 유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안정된 유형은 하룻밤의 관계나 일차적인 파트너 이외의 대상과 가장 적게 성 관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로가 주도하는 성 관계와 신체적인 접촉을 즐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적인 유형은 낮은 심리적 친밀감(예: 하룻밤 관계, 가의 대상과의 관계, 사랑 없는 성 관계 등)과 신체적인 접촉을 가장 덜 하는 것 경향을 보였다. 양가적인 여성은 노출이나 관음 증세를 보인 반면에 양가적인 남성은 가장 성적으로 억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양가적인 남성과 여성 모두 성 행동은 아니지만 포옹이나 애무를 즐기는 행동 패턴을 보였다.

애착 유형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마지막 연구의 흐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커플이나 배우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편안한 쉼터나 안전 기지로서 활용하는가와 관련된 것이다. Simson, Rholes과 Nelligan 등(1992)은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커플들의 애착 행동에 주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연애중인 커플을 대상으로 여성 피험자에게 실험 중 잠깐의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것이라고 말한 후 대기실에서 여성이 파트너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동과 파트너가 도움을 주는 상황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안정되어 있

으면서 불안 수준이 높은 여성은 더 많은 도움을 추구하고, 회피적이지만 불안수준이 높은 여성은 파트너로부터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위축되는 행동을 보였다. 안정되어있으면서 불안 수준이 높은 남성은 파트너에게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하며, 불안수준이 높은 회피적인 남성은 파트너에게 낮은 지지적 행동을 보였다. 애착 유형은 결혼에서 발생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반응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는데 (Mikulincer, Forian, & Weller, 1993) 회피적이고 양가적인 유형은 높은 적대감과 신체화 증상을 나타내고 양가적인 유형은 높은 불안과 우울 증상을 나타냈다. Cafferty와 동료들(Cafferty, Meedway, O'Hern, & Chappell, 1994)은 결혼 후에 파트너들이 다시 상봉하는 장면에서의 역동을 관찰하였다. 4달의 간격을 둔 재 상봉에서 안정된 남편과 부인은 높은 결혼 만족과 재 상봉에 따른 갈등을 덜 겪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몰두형의 피험자들은 결혼 만족감 수준이 낮고 더 많은 갈등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커플에서 전쟁에 참여한 남성은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추정됨에도 안정된 유형의 남성이 결혼관계에 대해 긍정적이고 떨어져있는 기간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낮게 보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인상적인 결과이다.

연구 문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지난 이십여 년간 서구에서는 성인 애착을 커플이나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틀로서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부 연구(김광은, 이위갑,

2005; 김주연, 2001; 이복동, 2000)가 이루어졌고 실제 부부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이숙 등의 연구(1999)와 조현주 등의 연구(조현주, 현명호, 정희연, 박인준, 1997)가 보고되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성인 애착의 관점에서 부부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 틀 및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 부부들의 개인별 성인 애착 유형 분포 및 부부간의 성인 애착 유형별 조합을 알아보고자 한다. 성인 애착 유형의 구분은 크게 세 가지 범주와 네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좀더 타당성 있게 애착 유형을 구분해 준다고 보고되고 있는 네 범주를 통해 유형을 구별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검사 역시 단일한 문장을 통해 애착 유형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rennan과 그의 동료들(Brennan, Clark, & Shaver, 1998a)이 회피와 불안으로 성인 애착을 개념화한 측정 도구를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 검사는 성인 애착을 측정하는 60개의 검사를 메타 분석하여 이 검사들이 공통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회피와 불안의 두 개 요인을 추출한 것이다.

본 연구의 표집은 실제 부부 관계에 있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부부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까닭은 비교적 표준적인 부부들의 반응을 통해 성인 애착과 관련된 여러 요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일반화될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 부부들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표집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기반을 두고 후속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 충청지역에 거주하며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부부로 연구 대상을 제한하였다.

둘째, 이러한 부부들의 성인 애착 유형이나 유형들의 조합이 부부들의 결혼만족도 및 갈등 대처 방식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를 일차적 요인으로 선정한 것은 현재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서구에서 수행된 성인 애착과 부부관계의 질에 대한 이론적 가설 및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성인 애착과 관련된 두 번째 요인으로 부부 갈등 대처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애착은 외부 위협이나 갈등상황일 때 더 활성화된다고 보므로 부부 갈등에 대한 애착 유형별 대처 방식은 이들의 유형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이를 통해 유형별 특성에 맞는 부부 갈등 중재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의 질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식, 성 관계, 배우자의 원가족을 포함한 자녀 세대로까지의 영향을 총괄하여 보여줄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할 예정이며, 부부 갈등 대처 전략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전통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는 네 가지 방식, 이성적 대처, 외부 도움 요청, 회피 대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을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어 제작한 것을 활용할 것이다.

방 법

대상 및 절차

충청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실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에 임한 대상은 총 200쌍의 400명 이었으나 회수되지 않은 자료와 부분적으로 반응이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것은 총 179쌍의 358명분의 자료였다. 조사 방법은 15명의 조사원들이 직접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남편과 부인에게 따로 따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50분 정도이다.

조사 참여자의 자세한 인구학적 특성은 부록1에 제시되어 있다. 이 중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전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0.61세(범위: 24~63, 편차: 8.66) 인데 남편은 41.99세(범위: 27~63, 편차: 8.67)이고, 부인은 39.33세(범위: 24~59, 편차: 8.49)였다. 이들의 학력은 남편(43%)과 부인(37%) 모두 대학졸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편의 경우 전문직이나 경영관리직(31%)과 사무직(22%)에 주로 종사하고 있고, 부인의 경우 주부 및 학생(40%)이나 전문·경영관리직(28%)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에서 300만원대의 응답 비율(30%)이 가장 많았고, 대다수(86%)가 부부 및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들의 결혼 기간은 평균 13년 8개월이었고, 평균 2년 정도의 교제 기간을 거쳐 과반수 이상(55.6%)이 연애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적인 자녀 수는 1.8명이었다.

도구

성인 애착 유형 척도

Bartholomew 등(1991)의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작동모델을 근거로 하여 애착의 네 가지 유형

을 알아보는 관계질문지를 김광은(2004)이 영문학자의 감수를 받아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안정형, 거부형, 몰두형, 그리고 두려움형의 애착 양식을 설명하는 네 개의 문장을 주고 이 문장 중에서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하나만 고르도록 되어 있다.

성인 애착 척도

이 척도는 Brennan 등(1998)이 개발한 척도를 김광은 등(2005)이 두 명의 영문학자의 감수를 받아 제작한 것이다. 이 척도는 이성관계에서 경험하는 여러 측면을 7점 척도에 따라 표시하며 회피와 불안의 두 요인에 따라 각각 18 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 내용 가운데 ‘파트너’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배우자’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Brennan 등의 연구(1998)에서 회피 요인의 문항내적합치도는 .94, 불안요인은 .91로 보고되었고 김광은의 연구(2005)에서 회피와 불안 요인의 문항내적합치도는 각각 .84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검사

이 검사는 미국 임상심리학자인 Snyder박사에 의해서 개발된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와 이 검사의 개정판(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Revised, MSI-R)을 기초로 권정혜, 채규만(2002)이 우리나라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 검사는 예 혹은 아니라고 응답하는 160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 보고식 검사이다. 이 검사는 두 개의 타당도 척도와 한 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전반적 불만족 척도, 그리고 결혼생활의 세부 영역별 불만족을 측정하는 11개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세부 영역별 척도는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공격 행동, 공유시간 갈등, 경제적 갈등, 성적 불만족,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 원가족 문제,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자녀 불만족, 자녀 양육 갈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불만족 정도를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역의 불만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시 두 개의 타당도 척도를 제외하고 전반적 불만족을 포함한 12개의 하위 척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검사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 면에서 평균 .78이었으며 2주간격으로 시행된 재검사 신뢰도는 요인에 따라 .70에서 .96까지 나타났다. 이 검사에 대한 타당화 연구(권정혜, 채규만, 2002)가 하위 척도간의 상관관계 및 요인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혼 상담집단 및 부부의사소통 집단, 자녀 상담 집단을 통해 의미 있는 준거 타당도를 보고하고 있다.

부부갈등대처행동 척도

이 척도는 McCubbin, Larson, Olson(1982)이 만든 가족 대처전략 척도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번안하여 조유리(2002)가 제작한 것이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부 갈등 시 대처 행동을 이성적 대처, 외부 도움 요청, 회피 대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척도의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5점까지의 범위에서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인별 문항내적합치도는 요인에 따라 .54에서 .81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결과 및 해석

본 연구 결과 및 해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예비분석을 통해 성인 애착과 결혼 만족도 및 부부갈등 대처 전략과 인구학적 요인과의 관계를 검토한 후, 부부 개인별 특성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부부 상호간에 나타날 수 있는 성인 애착 유형을 범주화하여 결혼 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방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비분석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인구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 가족 형태, 결혼 기간 및 유형, 교제 기간, 자녀수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성인 애착과 결혼 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성인 애착의 네 가지 유형의 분포와 인구학적 요인과의 아무런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성인 애착의 유형을 검증한 연구가 없으나 미국에서는 수행된 연구(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에 따르면 성별, 연령, 교육 수준에 따라 애착 유형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정형과 거부형의 비율이 높아지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안정형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성인 애착을 회피와 불안의 요인으로 개념화한 척도에서 회피 요인은 연령 [$F(1, 357)=4.43, p<.05$], 학력 [$F(5, 314)=3.57, p<.01$], 소득 [$F(5, 293)=2.28, p<.05$], 결혼 기간 [$F(4,$

$316)=4.23, p<.01$], 교제기간 [$F(4, 317)=3.55, p<.01$], 결혼 유형 [$F(3, 315)=10.42, p<.001$], 자녀수 [$F(5, 318)=2.74, p<.01$]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나이가 많고,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고,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피 점수가 높았으며, 교제 기간이 한달 미만이거나 자녀수가 4명 이상일 때 회피 점수가 가장 높았다. 반면 불안은 교제기간 요인에서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F(4, 326)=2.97, p<.01$] 교제 기간이 한달 미만이거나 2년 이상인 경우 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와 인구학적 요인과의 관계를 보면 결혼만족도의 전체적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전반적 불만족 요인에서 소득 [$F(5, 322)=2.27, p<.05$] 요인이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100만원 이하의 소득 수준의 경우 불만족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소득 수준에서 불만족 점수가 가장 낮았다. 소득 수준은 결혼 만족도의 다른 하위 요인들,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F(5, 322)=2.77, p<.05$],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F(5, 322)=3.44, p<.01$], 공격행동 [$F(5, 322)=2.22, p<.05$], 공유시간 갈등 [$F(5, 322)=2.24, p<.05$], 경제적 갈등 [$F(5, 322)=3.69, p<.01$]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 생활의 불만족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부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과 인구학적 요인과의 관계를 보면 외부도움 요청의 경우 성별 [$F(1, 350)=13.74, p<.001$], 연령 [$F(3, 348)=3.52, p<.01$], 결혼기간 [$F(4, 346)=3.57, p<.01$], 교제기간 [$F(4, 347)=2.46, p<.05$]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20대와 50대가 30대나 40대 보다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하며, 결혼 기간이 길거나 교제 기

간이 1개월 미만일 때 외부 도움을 더 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피 대처는 결혼 유형 [$F(3, 346)=10.94, p<.001$]과 관련 있었는데 중매로 맺어진 경우 연애나 절충적인 결혼을 한 경우보다 이 요인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보면 성인 애착 유형을 제외한 성인 애착 구성 요인, 결혼 만족도, 부부 갈등 대처 방식은 여러 인구학적 요인과 상당한 관련을 갖고 있다. 비록 성인 애착 유형과 인구학적 요인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으나 성인 애착을 회피와 불안으로 개념화했을 때 이 두 요인은 여러 인구학적 요인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결혼 만족도의 경우 소득 수준이 여러 하위 요인들과 관련이 있고 부부 갈등 대처 방식에서도 성별을 비롯한 여러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결혼 생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심리적인 요인 이외에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고찰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 중 이후 분석에서는 부부간의 성별 요인만을 포함시켰는데 이러한 까닭은 본 연구의 표집이 우리나라 부부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대표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 연구는 성인 애착과 부부관계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탐색하려는 성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과 다른 개념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인구학적 요인과 성인애착 및 부부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을 인과적으로 규명해 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부 개인별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분석

성인 애착 유형 분포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의 성별에 따른 애착 유형 분포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안정형은 64%로 나타났으며 거부형 17%, 몰두형 13%, 두려움형 6%의 순서로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의 성별에 따른 유형별 분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안정형의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두려움형은 그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다. 부부들의 안정형의 비율은 우리나라 대학생 및 외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장휘숙, 1997; 김광은, 2004; Barthlomew, & Horowitz, 1991; Feeney, Noller, & Callan, 1994)에서 나타나고 있는 40%~50% 수준보다 높은 편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애착 유형 분포가 안정형-몰두형-거부형-두려움형의 순서로 일관되게 나타나는데 비해(장휘숙, 1997, 김광은 2004) 이번 조사에서는 몰두형보다 거부형이 높은 서구식의 패턴(Barthlomew, & Horowitz, 1991; Feeney

표 1. 성인 애착 유형의 성별 분포 ():%

	안정형		거부형		몰두형		두려움형		계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N	125	105	29	33	19	26	6	15	179	179
%	(70)	(59)	(16)	(18)	(11)	(15)	(3)	(8)	(100)	(100)
계	230(64)		62(17)		45(13)		21(6)		358(100)	

et al. 1994)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참여자들은 실제 부부생활을 하고 있고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평균 연령도 40대라는 점에서 혼자 사는 사람보다 커플 관계에 있는 성인,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안정형과 거부형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 Zhang & Labouvie-Vief, 2004)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성인 애착 유형과 회피 및 불안 요인과의 관계

성인 애착 유형을 회피와 불안이라는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개념화하면 안정형은 회피와 불안 수준이 모두 낮으며, 거부형은 회피는 낮으나 불안은 높고, 몰두형은 그 반대이며, 두려움형은 회피와 불안 수준이 가장 높다. 이러한 가설이 실제 부부들의 성별 및 개인 애착 유형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회피 요인에서 남편(평균=46.57, 편차=15.42)이 부인(평균:43.83, 편차:15.31)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불안 요인에서는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나 부인(평균:62.09, 편차:15.78)이 남편(평균:59.88, 편차:15.82)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는 대조적인데 연애 경험이 있거나 연애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광은 등, 2005)에서 여자 대학생은 남자 대학생보다 회피요인의 점수는 높는데 비해 불안 점수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높았다. 이렇게 연애와 결혼관계에서 회피와 불안 요인에 대한 남녀간의 다른 반응은 결혼이 주는 심리, 사회적인 의미가 남녀에게 다소 다르게 지각되는 것과 관련되는 것 같다. 즉 많은 여성들

은 남성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공인된 결혼관계에서 파트너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다가서는 데에 어려움을 덜 느끼고 파트너와 일체가 되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해 더 많은 불안을 느낀다. 반면 남성들은 연애관계에서는 파트너와 좀더 가까워지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 비해 막상 결혼 관계에서는 파트너와의 친밀함을 나누는 기술이나 태도 면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현상은 연애와 결혼의 심리적 의미 이외에 우리 사회에서 연애와 결혼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남녀간의 회피와 불안에 대한 애착 반응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인 애착 유형별로 보면 회피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에 비해 불안 요인에서는 안정형에 비해 몰두형과 두려움형의 불안 수준이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성별과 유형에 따른 회피와 불안 점수를 참가자의 평균을 기준으로 도식화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정형의 남편과 부인, 두려움형의 남편과 부인은 비교적 이론적 가설에 부합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거부형의 경우 남편의 불안 점수가 다소 높기는 하나 회피 점수가 높은 전형적인 거부형의 특성을 보임에 비해 거부형 부인의 경우는 안정형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다. 몰두형은 몰두형 부인의 경우 회피는 낮고 불안은 높은 몰두형의 전형성을 보여주지만 몰두형 남성은 회피와 불안이 모두 높은 두려움형에 가까운 패턴을 보였다.

안정형에 가까운 거부형 부인들의 반응과 두려움형에 가까운 몰두형 남성의 반응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 있는 것 같다. 성별에 따른 성인 애착 유형의 분포에 대해 아직 일

관된 경향을 보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고 몰두형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 거부형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 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거부형 여성

표 2. 성인 애착 유형과 성별에 따른 회피, 불안 요인의 평균과 F 검증 () : 표준편차

	안정형		거부형		몰두형		두려움형		성별	F	Sheffe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회피	44.16 (15.07)	43.16 (16.15)	53.07 (17.18)	43.92 (15.88)	52.00 (15.04)	43.50 (11.51)	48.66 (7.96)	46.58 (18.55)	3.84*	1.85	
불안	43.84(15.24)		47.96(16.73)		47.52(14.14)		46.57(15.43)		.00	4.65**	a<b,c
	57.37 (16.04)	61.65 (15.35)	62.76 (15.42)	57.88 (12.09)	67.60 (13.45)	67.55 (15.93)	70.00 (12.86)	70.58 (18.54)			
	58.56(15.84)a		60.89(13.80)		67.84(14.32)b		70.38(16.47)c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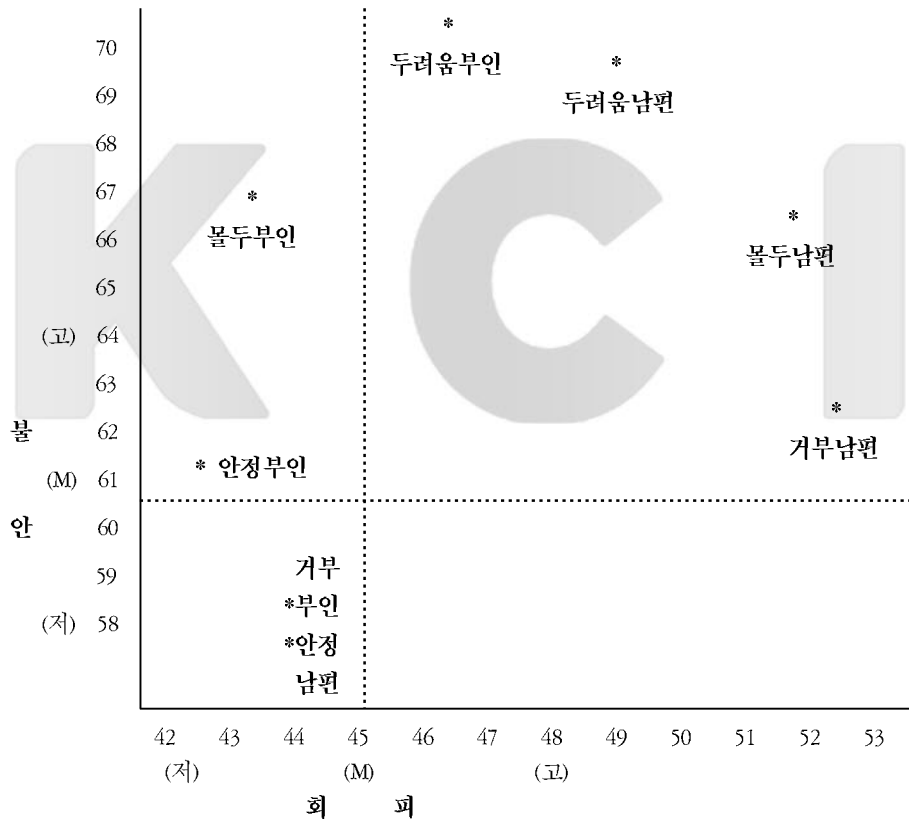


그림 1. 회피와 불안 요인에 따른 성인 애착 유형

은 의존을 거부하고 성취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통계청, 2005a) 우리나라 25세 이상의 여성 중 대졸 이상의 학력은 18%이고 전문 경영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16.9%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의 47%는 대졸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고 약 28%의 비율이 전문경영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회경제적으로 다소 높은 위치에 있는 본 연구 대상자의 특징은 일부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거부형의 비율이 높게 나온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들은 거부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인간 관계에 거리를 두려는 속성보다는 자기의 존이나 성취를 중요시 여기는 측면에 더 초점을 두고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자신감이 낮고 의존적인 몰두형의 특성은 고정관념적인 남성의 성역할에 위배되므로 본 연구에 참여한 몰두형 남편들은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기보다는 회피하는 쪽으로 방어한 결과 불안과 회피의 수준이 모두 높은 두려움형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 것이 아닌가 추론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안정형과 두려움형은 성별에 관계없이 회피와 불안 수준에 따른 성인 애착 유형의 이론적 모델이 실제 부부를 대상으로 한 검증에서도 확인되는 반면에 거부형과 몰두형은 성에 따라 그 반응의 특성이 선행 연구들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한 탐색 및 재검증을 위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성인 애착 유형과 결혼 만족도

성인 애착 유형 및 성별에 따른 결혼 만족도 요인과의 관계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결혼 만족도의 12개 요인 중 남편과 부인의 성

별에 따른 차이는 성적 불만족 요인에서만 나타났다. 남편의 불만족 점수(평균: 51.59, 편차: 10.85)가 부인의 점수(평균: 49.28, 편차: 9.85)보다 높다. 이는 결혼 생활에서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나 성 관계에 대한 남녀간의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성인 애착 유형별로는 자녀와 관련된 두 개의 요인과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9개의 요인에서 안정형과 거부형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불만족 점수를 보였고, 몰두형과 두려움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족 점수를 나타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생활의 전반적 만족도를 보여주는 전반적 불만족 요인에서 몰두형의 점수가 안정형이나 거부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몰두형이 결혼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감이 높은 것은 이미 여러 선행 연구들(Levy, & Davis, 1988; Kobak, Hazan, 1991)에서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거부형이 안정형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부형 부인들의 경우 안정형에 더 가까운 애착 특성을 갖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부부들의 의사소통과 갈등의 원천 및 대응 방식을 볼 수 있는 요인들에서 보면 몰두형과 두려움형은 정서적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의사소통에서 안정형이나 거부형에 비해 더 높은 불만족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부부간의 공격 행동은 회피와 불안이 높은 두려움형이 안정형에 비해 의미있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선행 연구(Pietromonaco, Greenwood, & Barret, 2004)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몰두형과 두려움형은 안정형에 비해 문제해결적인 측면에서나 정서적인 교류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때로 이러한 갈등은

표 3. 성인 애착유형과 성별에 따른 결혼만족도 요인의 평균과 F검증 ():표준편차

	안정형		거부형		몰두형		두려움형		F		Scheffe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성별	유형	
진반적 불만족	47.92 (8.37)	46.91 (8.12)	49.03 (8.87)	47.28 (7.44)	54.00 (9.78)	52.80 (9.87)	52.00 (4.73)	51.71 (10.41)	.60	6.92***	a,b<c
	47.46(8.25)a		48.11(8.13)b		53.22(9.73)c		51.80(8.95)				
정서 의사소통 불만족	48.94 (9.24)	48.44 (8.47)	49.90 (8.55)	47.28 (9.01)	52.95 (9.19)	51.56 (7.34)	51.67 (9.37)	52.86 (10.34)	.33	2.70*	
	48.72(8.89)		48.52(8.82)		52.16(8.12)		52.50(9.83)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48.11 (10.67)	46.00 (8.73)	49.21 (12.01)	46.78 (8.53)	51.37 (10.78)	52.04 (8.78)	58.50 (6.41)	51.07 (12.63)	3.09	5.21**	
	47.15(9.87)		47.93(10.32)		51.75(9.58)		53.30(11.50)				
공격행동	45.66 (9.24)	44.72 (8.06)	45.10 (10.89)	45.66 (8.37)	49.37 (13.88)	48.60 (10.19)	57.00 (15.81)	49.43 (11.47)	2.01	5.19**	a<b
	45.24(8.72)a		45.39(9.57)		48.93(11.78)		51.70(12.98)b				
공유시간 갈등	49.32 (9.71)	47.76 (9.30)	49.07 (9.23)	48.56 (9.94)	52.84 (10.58)	52.00 (10.83)	50.67 (9.14)	51.64 (12.09)	.09	2.15	
	48.61(9.54)		48.80(9.53)		52.36(10.61)		51.35(11.06)				
경제적 갈등	47.94 (9.13)	47.98 (8.50)	49.76 (9.66)	47.19 (8.67)	53.74 (10.50)	53.64 (10.91)	57.00 (16.58)	53.71 (11.09)	.78	4.58**	a<b
	47.96(8.83)a		48.41(9.17)		52.27(10.33)b		53.75(9.66)				
성적 불만족	50.68 (10.44)	48.39 (9.69)	51.52 (11.10)	47.92 (8.96)	56.00 (9.78)	52.80 (9.87)	52.00 (4.73)	51.21 (10.93)	4.46*	3.97**	a<b
	49.64(10.15)a		49.62(10.11)		54.66(10.68)b		52.95(12.71)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	54.85 (10.18)	54.49 (9.47)	50.69 (8.26)	54.00 (10.31)	54.26 (11.54)	55.08 (9.55)	55.33 (12.64)	55.93 (10.28)	.46	1.01	
	54.69(9.84)		52.43(9.46)		54.73(10.33)		55.75(10.70)				
원가족 문제	48.70 (9.64)	48.75 (8.93)	50.38 (9.22)	49.50 (8.36)	51.32 (9.48)	54.88 (9.94)	55.50 (8.83)	52.50 (11.44)	.00	3.90**	a<b
	48.72(9.30)a		49.92(8.72)		53.34(9.80)b		53.40(10.58)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46.64 (7.35)	46.14 (7.20)	49.83 (9.77)	49.63 (9.86)	51.63 (8.98)	52.84 (9.84)	55.67 (7.31)	49.79 (9.18)	1.05	9.68***	a<b,c
	46.41(7.27)a		49.72(9.73)		52.32(9.39)b		51.55(8.91)c				
자녀 불만족	48.01 (8.97)	47.38 (9.86)	47.86 (9.83)	45.72 (7.83)	47.53 (10.03)	49.60 (13.04)	44.33 (6.09)	49.71 (11.63)	.56	.31	
	47.72(9.37)		46.74(8.83)		48.70(11.75)		48.10(10.43)				
자녀양육 갈등	46.99 (8.76)	47.28 (10.17)	48.59 (9.62)	47.34 (9.51)	49.42 (12.31)	50.20 (11.09)	45.67 (6.41)	49.21 (13.85)	.28	.91	
	47.12(9.41)		47.93(9.50)		49.86(11.50)		48.15(12.03)				

*** $p < .001$, ** $p < .01$, * $p < .05$.

공격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향을 보인다. 부부들의 접촉 추구나 친밀감 수준을 볼 수 있는 성적 불만족 요인과 경제적 갈등 요인에서도 몰두형은 안정형에 비해 높은 불만족 점수를 나타냈다. 원가족 및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요인에서도 몰두형과 두려움형은 안정형에 비해 더 높은 불만족 점수를 보였다. 이렇게 몰두형과 두려움형의 경우 현재 배우자 가족이나 원가족과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관련된 두 요인에서는 성인 애착 유형간에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본 연구 대상이 비교적 정상적인 비임상집단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과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음 세대로까지 그대로 전달하지는 않는 일종의 완충적인 기능을 하지 않나 추론된다.

성인 애착과 결혼만족도에서 나온 결과를 요약해 보면 여러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처럼 안정형은 결혼만족도의 여러 요인에서 불만족 수준이 가장 낮았다. 반면 몰두형은 결혼만족도의 많은 요인에서 가장 높은 불만족 점수를 나타냈으며 몰두형에 이어 두려움형도 비슷한 수준으로 불만족한 경향을 보였다. 선행 연구의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 거부형은 안정형에 가까운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거부형 여성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에서만 나타난 제한된 결과인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와 자녀와 관련된 요인은 성인 애착 유형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성인 애착은 인구학적 특성이나 가치나 신념

표 4. 성인 애착 유형과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 대처 전략 요인의 평균과 F검증 (): 표준편차

	안정형		거부형		몰두형		두려움형		F	Sheffe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이성적 대처	19.25 (3.32)	19.26 (3.11)	17.44 (3.05)	18.84 (3.63)	17.94 (3.40)	19.16 (3.01)	19.66 (2.94)	16.71 (2.52)	.02	2.35	
	19.13(3.22)		18.21(3.40)		18.54(3.22)		17.66(2.92)				
외부도움 요청	11.99 (4.53)	14.33 (3.91)	11.00 (4.13)	11.75 (4.21)	12.42 (2.63)	14.16 (4.67)	15.00 (3.52)	13.21 (3.90)	1.27	3.46*	
	12.95(4.38)		11.47(4.13)		13.39(3.96)		13.75(3.79)				
회피대처	12.40 (3.55)	11.83 (3.33)	12.85 (4.30)	11.71 (3.60)	13.94 (3.51)	13.45 (4.25)	14.00 (1.67)	13.64 (3.71)	1.19	3.15*	
	12.13(3.43)		12.11(4.02)		13.65(3.86)		13.75(3.79)				
부정적 감정 및 행동표출	12.36 (4.88)	13.28 (4.38)	14.81 (4.96)	13.18 (4.38)	16.26 (5.09)	15.25 (4.94)	17.66 (2.65)	17.71 (6.64)	.30	9.25***	a<b,c
	12.79(4.55)a		13.96(4.65)		15.77(4.94)b		17.70(5.66)c				

*** $p < .001$, * $p < .05$.

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고유한 심리적 속성이라는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성인 애착의 세대 전이 면에서도 비교적 정상적인 집단의 경우 부모의 애착 패턴의 특성이 자녀의 양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다 여러 중재 변인을 거쳐 본인의 애착 특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인 애착 유형과 부부 갈등 대처 전략

성인 애착유형과 부부간의 성별에 따른 부부갈등 대처 전략을 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네 가지 대처 요인 모두에서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애착 유형 면에서는 이성적 대처를 제외한 세 개의 대처 방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부도움 요청에서 거부형이 점수가 가장 낮았고, 회피 대처는 몰두형과 두려움형의 점수가 안정형과 거부형에 비해 높았다.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에서는 결혼만족도의 공격행동 요인에서처럼 몰두형과 두려움형이 안정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역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안정형은 문제 해결적인 이성적 대처와 외부의 사회적 지지세력을 이용하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부부 갈등에 대처하는데 비해, 몰두형이나 두려움형은 부부 갈등을 회피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적 대응과 행동의

경향이 좀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간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분석

부부간 성인 애착 유형별 분포

부부를 한 쌍의 단위로 보고 부부간에 나타날 수 있는 애착 유형을 분류한 것이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론적으로는 10개의 성인 애착 유형의 조합이 가능하나 본 조사에서는 거부- 두려움형의 쌍과 두려움-두려움 쌍을 제외한 8개의 조합이 나타났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부 모두 안정형인 경우는 43%였고, 부부 중의 한 사람은 안정형이나 다른 사람은 불안정한 혼합 형태가 44%, 부부 모두 불안정한 유형은 13%였다. 본 연구에서 부부가 동일한 유형(안정-안정, 거부-거부, 몰두-몰두)을 보인 비율은 51%였고 다른 유형끼리 맺어진 쌍은 49%였다.

부부간 성인 애착 유형과 회피, 불안 요인과의 관계

부부간 애착 유형의 조합과 회피 및 불안 요인과의 관계를 보면 회피 요인에서는 거부-몰두형이 안정형으로 맺어진 쌍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불안 요인에서는 몰두-두려움의 쌍이 안정형으로 이루어진 쌍이나 안정과 거부로 이루어진 쌍보다 의미있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부부간 애착 유형의 조합

표 5 .부부간 성인 애착 유형별 분포 ():%

	안정- 안정	안정- 거부	안정- 몰두	안정- 두려움	거부- 거부	거부- 몰두	몰두- 몰두	몰두- 두려움	계
N	154	70	50	34	22	8	12	8	358
%	(43)	(20)	(14)	(10)	(6)	(2)	(3)	(2)	(100)

표 6. 부부간 성인 애착 유형별 회피, 불안요인의 평균과 F검증 () :표준편차

	안정- 안정	안정- 거부	안정- 몰두	안정- 두려움	거부- 거부	거부- 몰두	몰두- 몰두	몰두- 두려움	F	Sheffe
회피	43.41a (14.71)	46.33 (16.53)	46.93 (14.55)	43.44 (15.24)	42.05 (13.35)	66.00b (22.14)	44.57 (17.25)	46.12 (10.62)	2.72**	a<b
불안	59.22a (15.65)	58.44b (14.14)	65.32 (15.86)	60.81 (19.20)	59.15 (14.16)	67.42 (11.41)	62.66 (10.68)	81.25c (9.67)	3.25**	a, b<c

**p<.01.

을 회피(평균=45)와 불안(평균=61)요인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회피와 불안이 모두 낮은 안정형의 특성을 가진 영역에는 안정-안정, 안정-거부, 안정-두려움, 거부-거부 유형이 포함되어 있고 회피는 낮지만 불안이 높은 몰두형에는 몰두-몰두 유형이 위치해 있다. 회피와 불안 수준이 모두 높은 두려움형 영역에는 안정-몰두, 거부-몰두, 몰두-두려움의 유형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부부가 모두 안정형이거나 한 쪽 만이라도 안정형인 경우 두 사람 사이의 회피와 불안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 같다. 예외가 있다면 본 연구에서는 부부 개인별 특성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거부형 부인의 경우 안정형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 거부형끼리 연합된 커플이나 안정형과 맺어진 커플은 전형적인 안정형에 가까운 특성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일한 거부형일지라도 자신과 정반대 되는 특성을 지닌 몰두형과 짝 지워졌을 때에는 회피와 불안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부간의 애착 유형이 어떻게 연합되었느냐에 따라 부부 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몰두형의 경우에서도 같은 몰두형의 조합은 회

피는 낮고 불안은 높은 전형적인 몰두형의 패턴을 보이는 데에 비해 이들이 자신과 부분적으로 반대되는 속성을 지닌 안정형이나 두려움형과 짝 지워졌을 때는 회피와 불안 수준이 모두 높은 두려움형의 패턴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의 역동 이해를 위해서 부부의 개인별 애착 유형 뿐 아니라 이러한 유형들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부부간 성인 애착 유형별 결혼 만족도

부부간의 애착 유형과 결혼 만족도의 하위 요인들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만족도의 여러 하위 요인에서 자신에 대한 표상이 긍정적이고 부부 관계에 대해 불안이 낮은 안정형으로 이루어진 쌍과 거부형으로 이루어진 쌍의 경우 불만족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이나 회피와 불안의 측면에서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거부-몰두형의 조합과 자신에 대한 표상이 부정적이고 관계에 대한 불안이 높은 몰두-두려움형의 쌍이 결혼 만족도의 여러 하위 요인에서 높은 불만족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전체적인 결혼만족도를 나타내는 전반적 불만족

표 7. 부부간 성인 애착 유형별 결혼만족도 요인의 평균과 F검증 (): 표준편차

	안정- 안정	안정- 거부	안정- 몰두	안정- 두려움	거부- 거부	거부- 몰두	몰두- 몰두	몰두- 두려움	F	Sheffe
전반적불만족	47.28 (8.14)	47.31 (8.02)	51.18 (8.57)	50.20 (10.70)	46.41 (5.93)	57.38 (12.51)	48.30 (7.62)	57.50 (9.47)	4.30***	
정서적의사 소통불만족	47.55a (8.11)	48.59 (9.62)	51.22 (8.74)	52.47 (9.47)	47.50 (6.93)	59.50b (9.15)	50.80 (7.63)	57.00 (10.18)	4.58***	a<b
문제해결의사 소통불만족	46.30a (9.36)	46.24b (10.33)	48.72 (9.50)	54.00d (10.69)	47.05 (10.20)	57.25 (10.07)	53.60 (8.14)	59.88c (3.72)	5.98***	a,b<c a<d
공격행동	44.79a (8.9)	43.12b (6.23)	48.14 (10.37)	48.73 (11.99)	49.32 (12.30)	42.13c (5.17)	46.20 (12.04)	59.38d (13.70)	5.28***	a,b,c<d
공유시간갈등	48.05a (9.23)	48.66b (10.37)	53.22 (9.28)	51.37 (11.40)	48.23c (9.53)	60.88d (16.05)	53.20 (9.73)	61.25 (13.87)	4.14***	a,b,c<d
경제적갈등	47.93 (8.73)	45.41a (8.06)	51.62 (9.86)	52.43 (9.82)	49.09 (7.98)	54.38 (10.84)	50.30 (11.41)	58.13b (10.33)	4.69***	a<b
성적불만족	49.03 (9.62)	48.66 (10.37)	53.22 (9.28)	51.37 (11.40)	48.23 (9.53)	60.88 (16.05)	53.20 (9.73)	61.25 (13.87)	4.04***	
비관습적 성역할태도	54.69 (9.39)	54.00 (9.59)	56.22 (10.30)	54.97 (11.94)	52.23 (8.99)	48.50 (5.63)	50.60 (9.03)	59.38 (12.82)	1.37	
원가족문제	48.66 (9.59)	49.40 (9.38)	51.42 (9.15)	49.37 (9.85)	51.09 (6.57)	52.88 (11.23)	52.70 (11.54)	54.88 (10.79)	1.19	
배우자가족 과의 갈등	45.99a (6.91)	48.00b (8.19)	49.18 (8.73)	48.87 (8.80)	48.95 (11.15)	55.88 (7.92)	49.10 (8.62)	59.88c (8.32)	5.26***	a,b<c
자녀불만족	47.45 (8.79)	48.25 (10.59)	48.32 (10.45)	50.20 (11.07)	45.32 (7.09)	40.00 (3.02)	50.90 (14.07)	42.00 (4.17)	1.87	
자녀양육갈등	47.06 (9.51)	48.29 (9.83)	46.76 (9.65)	50.10 (11.94)	45.23 (7.40)	50.63 (12.42)	53.60 (11.82)	43.25 (6.43)	1.50	

*** $p < .001$.

요인을 비롯하여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유시간 갈등, 성적 불만족 요인에서 나타나고 있다.

거부-몰두형과 몰두-두려움형이 결혼 만족도의 하위 요인에서 다른 경향을 보인 것은 공

격행동이다. 공격행동에서 몰두-두려움형은 안정형으로 이루어진 쌍은 물론 안정-거부형, 거부-몰두형에 비해서도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몰두형과 두려움형의 경우 이들은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를 둘 간의 관계를 위협하는 신호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빈도가 더 많다는 선행 연구(Pietromonaco et al., 2004; Robert et al., 1998)를 지지하는 것이다. 몰두-두려움형은 경제와 같은 현실적인 측면이나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더 많은 어려움과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총체적인 면에서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는 커플 중의 하나라고 예상된다.

거부-몰두형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보인 요인은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과 공유시간 갈등이다. 이는 관계 면에서 회피형은 몰려서려는 특성을 갖고 있음에 비해 몰두형은 더욱 관계에 연연해하여 이 둘간의 불일치는 몰두형끼리의 쌍이나 거부형끼리의 쌍보다 훨씬 높은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한 애착 유형의 경우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유형의 조합이 같은 특성을 가진 유형의 조합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부부간의 애착 유형 조합에서 비판습적 성

역할 태도, 원가족문제, 자녀와 관련된 두 요인에서는 아무런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역시 부부 개인별 특성에서 살펴본 듯이 성인 애착 유형은 상대적으로 가치의 영향을 덜 받는 심리적 특성이며, 비교적 건강한 집단의 경우 과거 세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현재 자신의 특성을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관련된 영역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부간 성인 애착 유형별 부부갈등 대처 방식

부부간의 성인 애착 유형과 부부 갈등 대처 방식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부 도움 요청을 제외한 세 개의 요인에서는 유형별 집단 평균의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요인에서 몰두-두려움형의 점수는 안정형끼리 맺어진 커플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 결과는 결혼만족도의 공격행동 요인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몰두-두려움형은 그 어떤 유형보다 부

표 8. 부부간 성인 애착 유형별 부부갈등 대처 전략 요인의 평균과 F검증 () :표준편차

	안정- 안정	안정- 거부	안정- 몰두	안정- 두려움	거부- 거부	거부- 몰두	몰두- 몰두	몰두- 두려움	F	Sheffe
이성적대처	19.51 (3.05)	18.08 (3.70)	18.56 (3.36)	17.33 (2.74)	18.95 (2.69)	16.87 (2.29)	19.40 (3.53)	20.87 (2.69)	3.46***	
외부도움요청	13.19 (4.30)	11.82 (4.39)	13.16 (3.84)	12.31 (4.44)	12.13 (4.61)	12.37 (4.74)	13.30 (3.91)	15.87 (4.15)	1.48	
회피대처	11.94 (3.43)	12.41 (3.24)	12.68 (3.63)	13.75 (3.32)	11.13 (4.41)	15.62 (4.30)	13.40 (3.80)	13.12 (3.75)	2.55**	
부정적감정 및 행동표출	12.76a (4.56)	12.76 (4.64)	14.42 (4.89)	15.73 (5.84)	15.38 (4.67)	12.75 (3.05)	14.10 (4.17)	19.37b (4.27)	4.22***	a<b

***p<.001, **p<.01.

부 갈등 시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유형이다.

부부 갈등 대처 전략과 관련하여 다소 예외적인 반응이 있다면 이성적 대처에서 몰두-두려움형의 점수가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응은 몰두-두려움형이 이성적 대처를 잘한다는 의미보다는 기본적으로 불안이 높은 이 유형의 특성상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애착체계의 활성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이성적 대처를 포함한 외부 도움 요청이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같은 다양한 형태의 대처가 모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몰두-두려움형의 경우 회피 대처를 제외한 모든 대처 방식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고 생각된다.

부부갈등 대처 방식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은 거부형끼리 맺어진 커플의 반응이다. 여러 선행 연구(김광은, 이위갑, 2005; Pietromonaco et al., 2004)에서 거부형의 전형적인 대처 방식은 회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거부형의 쌍이 회피 대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부부 개인별 분석에서 보았듯이 본 연구에 참여한 거부형 부인이 안정형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 것과 관련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거부형이 자신과 정 반대되는 몰두형과 짝을 이룬 경우에는 회피형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회피 대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역시 부부간의 관계 이해를 위해 성인 애착의 개념을 적용할 때 부부들의 개별적 애착 유형의 파악은 물론 어떤 유형과 짝을 이루었는가를 고려해야 부부간의 역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성인 애착의 개념을 부부관계에 적용해 보기 위한 탐색적 시도로 성인 애착 유형과 결혼만족도 및 갈등 대처 전략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해 보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인 애착 유형은 부부간의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 결혼만족도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개인의 애착 유형이나 부부간의 애착 유형 조합에서 안정형은 불안정한 유형보다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이 낮은 경향을 보였고 의사소통과 관련된 요인이나 결혼불만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공유시간갈등, 경제적 갈등, 성적 불만족,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에서도 일관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불안정한 애착 유형 중 몰두형이나 두려움형은 선행 연구들에서처럼 결혼생활에서 여러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두 유형이 커플로 맺어진 경우 결혼 만족도의 여러 요인에서 의미있게 높은 불만족 점수를 나타냈다. 성인 애착 유형은 부부 갈등 대처 전략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개인별로나 부부간의 애착 유형 조합에서 안정형은 불안정형에 비해 이성적인 대처를 주로 하고 회피나 부정적 감정 및 행동 표출 같은 비건설적인 전략을 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불안정한 유형 중 몰두형과 두려움형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 표출을 의미 있게 많이 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 두 유형이 부부로 맺어졌을 때 이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서구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부

부들에게도 성인 애착의 개념을 적용하여 부부 관계를 이해하고 각 유형이 겪을 수 있는 부부 갈등을 사전에 진단하여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중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들과 다소 다른 결과가 있다면 성인 애착 유형 중 ‘거부형’의 반응이다. 본 연구에서 거부형 부인은 거부형 남편과 달리 성인 애착의 개념을 회피와 불안의 요인으로 개념화했을 때 안정형에 가까운 특성을 보였고, 남편과 부인 모두 부부 개인별로는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대처전략에서 ‘안정형’에 가까운 특성을 보였다. 발달적 관점이나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연령 증가와 학력이나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아질수록 자기의존적이고 독립적인 거부형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거부형의 안정형에 가까운 긍정적 특성은 개념적인 측면이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재검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 개인별 애착 유형 뿐 아니라 부부간의 애착 유형 조합에 따라 결혼 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을 살펴보았는데 개인별 특성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던 사실 중 부부간의 조합에 의해 새롭게 드러난 몇 가지 경향이 있다. 첫째, 부부 중 한 사람은 안정형이고 다른 한 사람은 불안정형인 혼합형 커플의 경우 안정형으로만 이루어진 커플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몇 개의 요인을 제외하고는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 대처 전략 면에서 안정형과 크게 차이나지 않은 점수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혼합형 커플의 경우 안정형 배우자가 불안정한 배우자의 역기능적 특성을 상당 부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두 번째의 발견은 동일한 애착 유형이라 할

지라도 어떤 유형과 짝 지워졌는가에 따라 부부간의 관계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본 연구에서 개인적인 특성 면에서 거부형은 안정형에 가까운 속성을 지녔다. 따라서 이 거부형이 안정형과 짝을 이루었거나 거부형끼리 커플이 되었을 경우에는 결혼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 면에서 안정형에 가깝거나 안정형보다 더 긍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거부형이 자신과 정반대 되는 몰두형과 짝 지워졌을 때는 결혼만족도 및 부부갈등 대처 전략의 많은 요인에서 불안정한 유형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두려움형으로만 이루어진 부부는 한 쌍도 없었기 때문에 결과를 단정하기가 어렵지만 불안정한 애착 유형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유형으로 짝 지워진 커플인 ‘거부-거부형’이나 ‘몰두-몰두’형은 불안정한 유형 중 다른 유형과 맺어진 커플, ‘거부-몰두’, ‘몰두-두려움’ 형보다는 결혼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 면에서 어려움이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간의 상보성보다는 유사성이 부부 관계의 만족도를 높이고 부부갈등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나타낸 준다.

이 이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새로운 사실 중 한 가지는 비교적 건강한 부부들은 자신의 원가족과 관련된 문제나 자신의 문제를 다음 세대인 자녀와 관련된 영역까지 확장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의 ‘자녀불만족’이나 ‘자녀양육갈등’의 두 요인은 부부 개인의 애착 유형이나 부부간 애착 유형의 조합에서 아무런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의 대물림 현상이 자신 세대의 건강성에 따라 상당히 가변적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성인 애착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는 자기 보고에 의해 애착 유형을 선택하고 애착 요인에 응답하는 형식을 채택하였으므로 여기에는 사회적 선호도에 따른 반응의 편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애착 유형을 분류하는 검사가 네 가지 문항 중 하나를 강제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신뢰도 및 타당성 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회피와 불안으로 성인 애착 유형을 개념화할 수 있는 도구를 부가적으로 사용하기는 했으나 아직 이에 따라 애착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표준적인 기준점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성인 애착과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신뢰도나 타당도가 보장되는 검사 개발 및 자기 보고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결혼만족도의 여러 요인과 부부 갈등 대처 전략의 요인들이 내용상 중복되는 경향을 보여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의 효율성 면에서 요인 설정에 좀더 신중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연구 대상 표집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부부관계에 있는 연구 참여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표집의 한계는 본 연구 결과를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의 특수한 관심을 가진 대상에 초점을 둔다하더라도 이들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인구학적 요인 및 특성을 고려한 표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소개되지 않은 성

인 애착의 개념을 부부관계에 적용해 보고 실증적인 측면에서 검증했다는 점에서 부부관계를 또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게 해 줄 뿐 아니라 실제 부부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문제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정혜, 채규만 (2002). 결혼만족도 검사-사용자 매뉴얼. 학지사.
- 김광은 (2004).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25-239.
- 김주연 (2001). 대학생의 애착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수준 및 이성관계 만족도와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복동 (2000).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 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숙, 우희정, 노명희, 최정미 (1997). 부부의 애착 유형과 결혼 적응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지방대 육성과제보고서.
- 조유리 (2000). 부부 갈등 및 갈등 대처 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현주, 현명호, 정희연, 박인준 (1997). 성인 애착유형이 부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임상심리학회 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80-184.

- 통계청 (2005a). 인구, 가구/교육정도별 인구. www.nso.go.kr
- 통계청 (2005b). 인구, 가구/주요 이혼력 지표. www.nso.go.kr
- 한국상담심리학회 (2004). 이혼 전 상담제도의 필요성과 상담의 방향. 한국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 한국상담심리학회 (2005). 2005 통계 연수- 부부 상담의 이론과 실제. 한국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24.
- Berman, W. H., Marcus, L., & Berman, E. R. (1994). Attachment in marital relations.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pp.204-231).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rman, W. H., & Sperling, M. B. (1994).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pp.3-28).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267-283.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A. Simpson & W. A.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Carfferty, T. P., Davis, K. E., Medway, F. J., O'Hern, R. E., & Chappell, K. D. (1994). Reunion dynamics among couples separated during Operation Desert Storm: An attachment theory analysis. In K. Bartholomew & D. Perlman(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ttachment process in adulthood*(pp.309-330). London: Jessica Kingsley.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6). Attachment, care-giving,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in couples: Effects of self and partner. *Personal Relationships*, 3, 257-277.
- Feeney, J. A. (1996). Attachment, care-giving,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3, 401-416.
- Feeney, J. (1999). Adult romantic attachment and couple relationships. In J.Cassidy, & P.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 355-377).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Feeney, J. A., Noller, P., & Callan, V. J. (1994). Attachment styles,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in the early of marriage. In K. Bartholomew & D. Perlman(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5. Attachment Process in adulthood*(pp.269-308). London: Jessica Kingsley.
- Feeney, J. A., Noller P., & Hanrahan, M. (1994). Assessing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s*(pp. 128-15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Feeney, J. A., Noller, P., & Patty, J. (1993).

- Adolescents' interactions with opposite sex: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 and gender. *Journal of Adolescence*, 16, 169-186.
- Fisher, J., & Crandell, L. (2001). Patterns of relating couples. C. Clulow(Ed.), *Adult attachment and couple psychotherapy*(pp.15-27). London: Brunner-Routledge.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azan, C., Zeifman, D., & Middleton, K. (1994). *Adult romantic attachment, affection, and sex*. Paper presented at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sonal Relationships, Groningen, The Netherlands.
- Keelan, J., Dion, K. L., & Dion, K. K. (1984). Attachment style and heterosexual relationships among young adults: A short-term panel stud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201-214.
- Keelan, J., Dion, K. L., & Dion, K. K. (1998). Attachment style and relationships satisfaction: Test of a self disclosure explanation.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0, 24-35.
- Kobak, R.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1991).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861-869.
- Kotler, T. (1985). Security and autonomy within marriage. *Human Relations*, 38, 299-321.
- Kunce, L. J., & Shaver, P. R. (1994). An attachment-theoretical approach to care-giving in romantic relationships. In K. Bartholomew & D. Perlman(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ttachment Process in adulthood*(pp.205-237). London: Jessica Kingsley.
- Levy, M. B., & Davis, K. E. (1988). Love styles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s and to variou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39-471.
- Mickelson, K. D., Kessler, R. C., & Shaver, P. R. (1997). Adult attachment in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5), 1092-1106.
- Miilkulincer, M., & Nachshon, O. (1991). Attachment styles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409-1423.
- Miilkulincer, M., Floriatn, V., & Weller, A. (1993). Attachment styles, coping strategies an post traumatic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Gulf War in Isra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17-826.
- Parkes, C. M. (1972). *Bereavement*.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Pieatromonaco, P. R., Greenwood. D., & Barret, L. F. (2004). Conflict in adult close relationship. In W. Steven Rholes & Jeffery A. Simpson(Eds.), *Adult attachment*(pp. 267-299).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Pistole, M. C. (1989). Attachment in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Style of conflict resolu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6, 505-510.
- Roberts, N., & Noller, P. (1988). The associ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couple violence: the role of communication on

- pattern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A. Simpson & W. A. Rholes(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pp.317-350). New York: Guilford Press.
- Rothbard, J.C. & Shaver, P. R. (1994). Continuity of attachment across the life span. In M. B. Spert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pp.31-71).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enchak, M., & Leonard, K. E. (1992). Attachment styles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newlywed coupl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9, 51-64.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71-980.
- Simpson, J. A., Rholes, W. S., & Nelligan, J. S. (1992). Support seeking and support giving within couples in an anxiety-provoking situation: The role of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434-436.
- Zhang, F., & Labouvie-vief, G. (2004). Stability and fluctuation in adult attachment style over a 6-year period.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6(4), 419-437.
- Weiss, R. S. (1975). *Marital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원 고 접 수 일 : 2005. 5. 31
수정원고접수일 : 2005. 7. 25
게 재 결 정 일 : 2005. 8. 5



Marital Satisfaction and Coping Strategies of Marital Conflict in Relation With Adult Attachment Styles

Kwang Un Kim

Korea Air Force Academy

This study investigated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coping strategies of marital conflict of Korean couples in view of adult attachment. For this purpose, related research reviews were made and the survey was carried on the subjects of 179 couples in Chungcheong province using two adult attachment scales, the Korean-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KMSI), and the Scale of Couple Conflicts Coping Strategies(SCCCS). The data analysis was made on the factors of the demographic variables, individual attachment styles and couples' attachment styles.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gender produces differences only in sexual dissatisfaction. The level of dissatisfaction of husbands was higher than that of wives. Second, the differences among the adult attachment styles were shown in following sub-variables in the KMSI: global distress, affective communication, problem-solving communication, aggression, time together, disagreement about finances, sexual dissatisfaction, and family history of distress. Mostly, the secure couples showed lower level than the insecure couples in the KMSI. Third, the differences of level in the SCCCS by the adult attachment styles appeared in the area of rational coping, avoidance, and negative feeling and aggressive behavior. The pair of preoccupied and fearful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negative feeling and aggressive behavior than the pair of secure and secure.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adult attachment and some suggestions were made to build up the intervention strategies for couple conflict solutions.

Key Words : *Adult Attachment Styles, Marital Satisfaction, Coping Strategies of Marital Conflict*

부록.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

요 인	남편	부인	전체	
연령	20세-29세	11	21	32(8.9)
	30세-39세	63	75	138(38.5)
	40세-49세	67	54	121(33.5)
	50세 이상	36	28	64(17.9)
	무응답	2	1	3(.8)
학력	국졸	3	4	7(2.0)
	중졸	5	14	19(5.3)
	고졸	39	46	85(23.7)
	전문대졸	12	27	39(10.9)
	대학졸	77	66	143(39.9)
	대학원졸	39	18	57(15.9)
	무응답	4	4	8(2.2)
직업	기능·기술직 종사자	35	2	37(10.3)
	농업 및 어업 종사자	8	3	11(3.1)
	단순노무직 종사자	4	1	5(1.4)
	사무직 종사자	40	20	60(16.8)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5	10	15(4.2)
	자영업 종사자	24	3	27(7.5)
	전문직·경영 관리직 종사자	55	51	106(29.6)
	주부 및 학생	2	71	78(20.4)
	무직·기타	4	17	21(4.2)
	무응답	2	1	3(.8)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6(4.5)	
	101만원-200만원		94(26.3)	
	201만원-300만원		108(30.2)	
	301만원-400만원		61(17.0)	
	401만원-500만원		22(6.1)	
	501만원 이상		22(6.1)	
	무응답		35(9.8)	

부록. 계속

	요 인	남편	부인	전체
가족 형태	핵가족(부부, 부부+자녀)		306(85.5)	
	확대가족(노부부+부부+자녀)		42(11.7)	
	기타		5(1.4)	
	무응답		5(1.4)	
결혼 기간	12개월 이하		19(5.3)	
	13개월-60개월		50(14.0)	
	61개월-120개월		72(20.1)	
	121개월-240개월		127(35.5)	
	241개월 이상		84(23.5)	
	무응답		6(1.7)	
교제 기간	1개월 이하		26(7.3)	
	2개월-6개월		61(17.0)	
	7개월-12개월		108(30.2)	
	13개월-24개월		51(14.2)	
	25개월 이상		107(29.9)	
	무응답		5(1.4)	
결혼 유형	연애결혼		199(55.6)	
	중매결혼		94(26.3)	
	절충혼(연애+중매)		56(5.6)	
	기타		2(.6)	
	무응답		7(2.0)	
자녀수	0		34(9.5)	
	1		67(18.7)	
	2		197(55.0)	
	3		50(14.0)	
	4명이상		6(1.7)	
	무응답		4(1.1)	